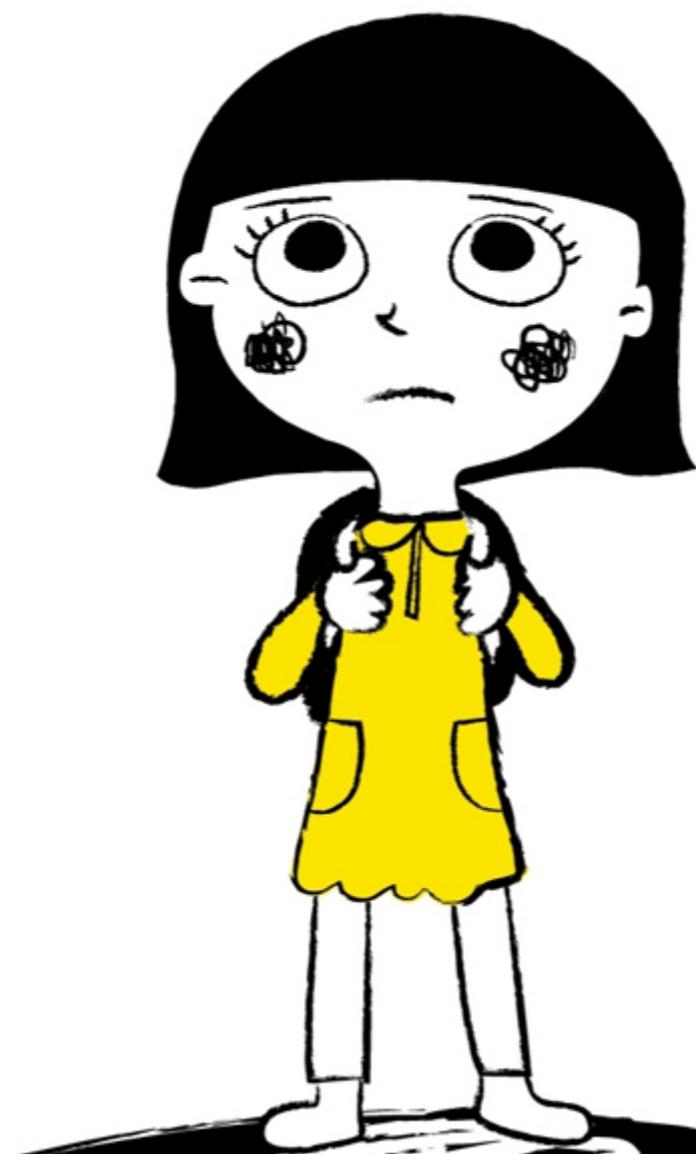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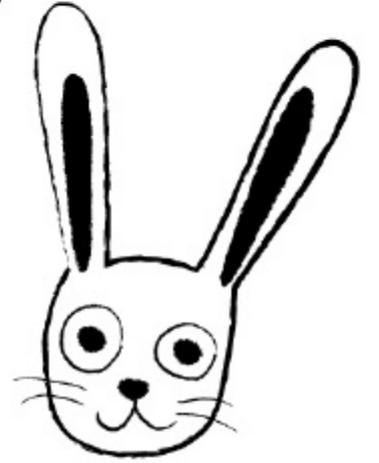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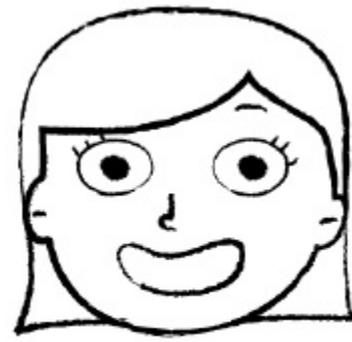
눈이 마주쳤을 때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지, 측은하게 보는지,
호기심 있게 보는지, 두려워하면서 보는지 느껴집니다.

우리를 측은하게 바라보지 말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봐주고,
웃어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일도 유치원에 갈 거예요!

지은이 한기명 그린이 조영희





나는 6살 지혜예요.

우리 집에는 할머니, 아빠, 엄마, 여동생, 남동생 6식구가 살고 있어요.
방이 두 칸인 작은 집에서 토끼랑 강아지랑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할머니와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는 신기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새로운 물건들도 많아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이 하나씩 생길 때 내가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호떡과 어묵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찌다가 그랬어요?”

“애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쯧쯧”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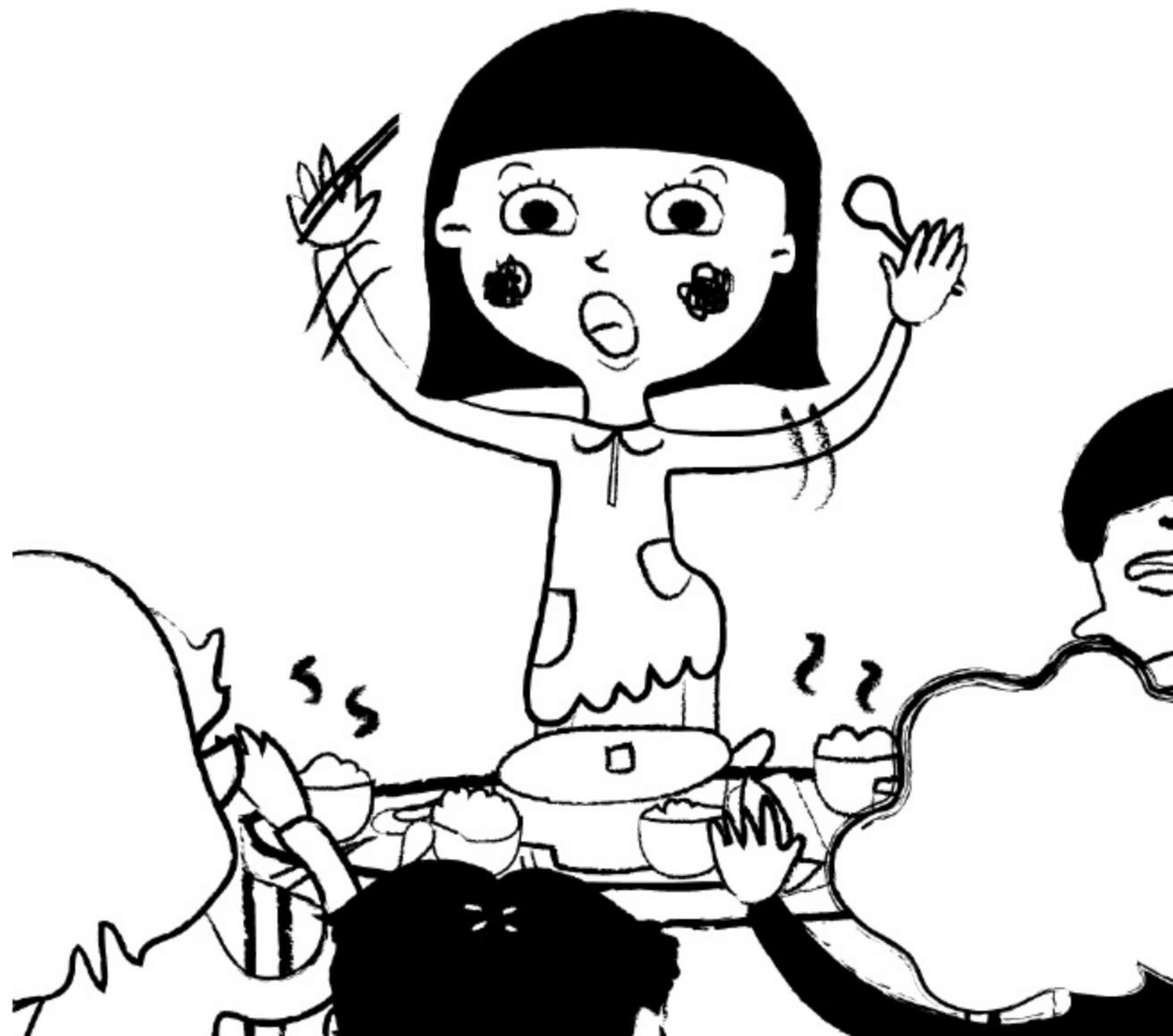
시장에 다녀온 할머니가 속상해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
할머니가 속상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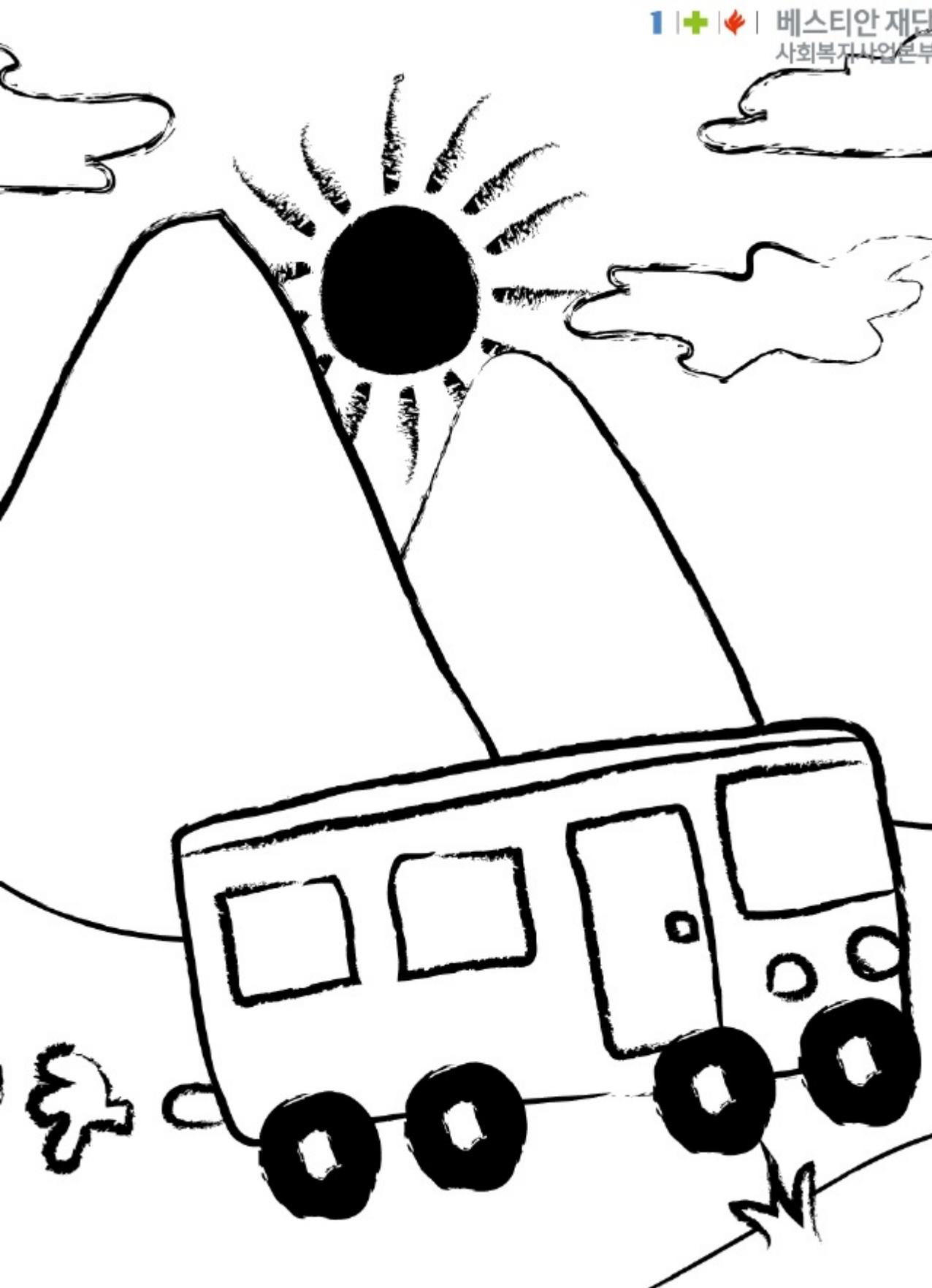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부모님께
시장에서 즐거웠던 일만 얘기해요.

우리 가족들은 하하 호호~ 즐거운 식사를 해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시장에서 있었던 일도 자고나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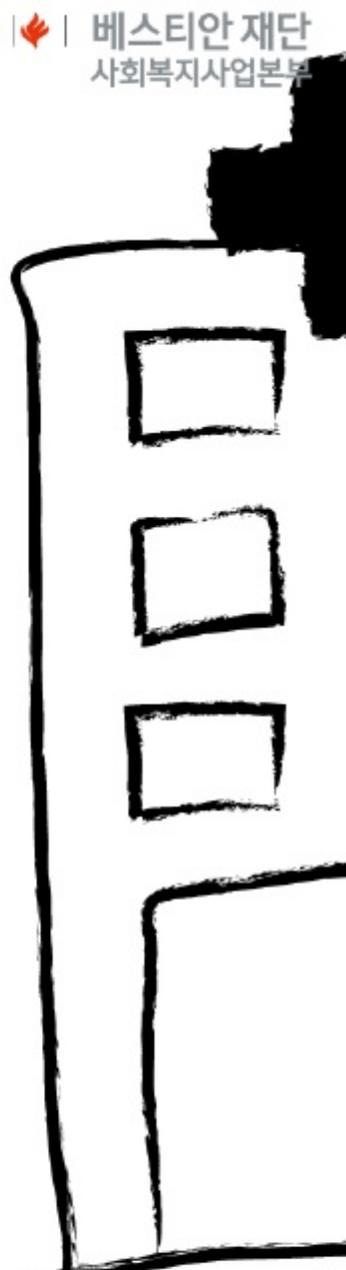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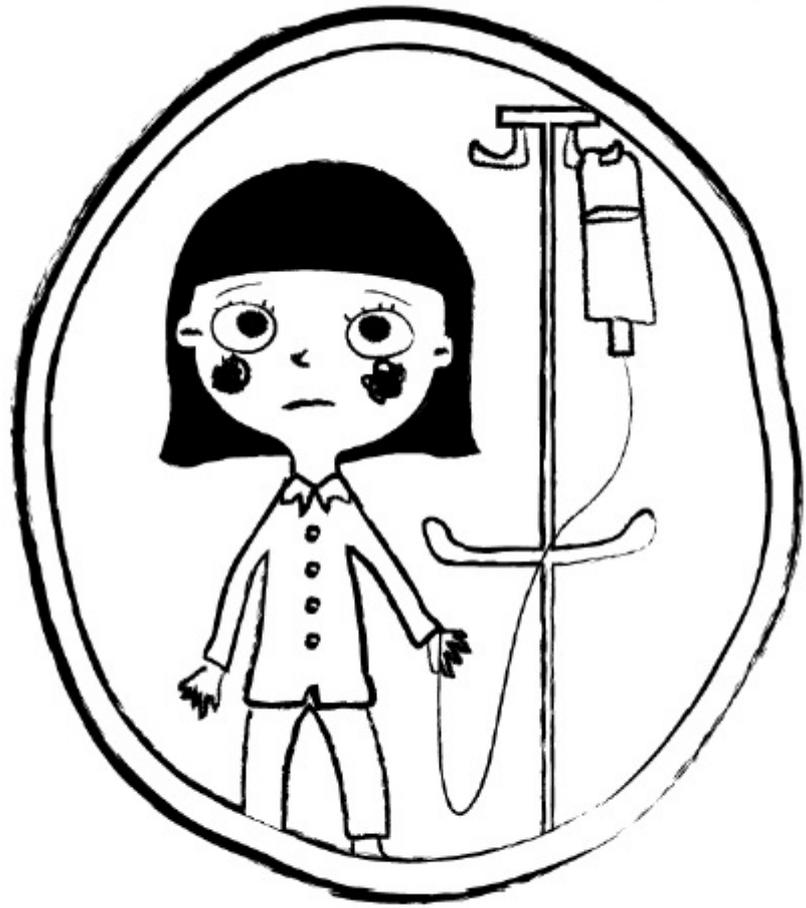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엄마가 나만 깨웠어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서울에 수술하러 가는 날이래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녔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더 자고 싶어서 짜증이 났지만,
엄마가 책을 선물해준다고 해서 신이 나서 준비를 했어요.

버스 안에서 엄마와 자다가 일어나니 서울에 도착했어요.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간 나는 아픈 주사를 맞긴 했지만 괜찮아요.
나는 씹씹하거든요.

씹씹하게 주사를 맞으면 엄마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주어요.
맛있는 것을 먹고 나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간호사 언니가 안내해준 방에 갔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어요.

엄마와 나는 빈 침대에서 껴안고 잤어요.





아침이 되어서 나는 세수를 했어요.
나는 밥도 먹지 못하고 움직이는 침대에 누워서 어디론가 가요.
엄마가 자꾸 미안하다고, 울기만 해요.
나는 왜 우는지 몰랐지만,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 울지 마! 나는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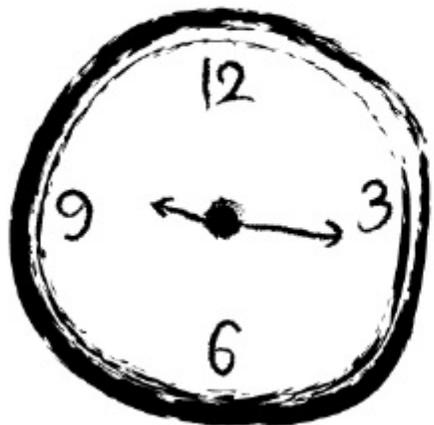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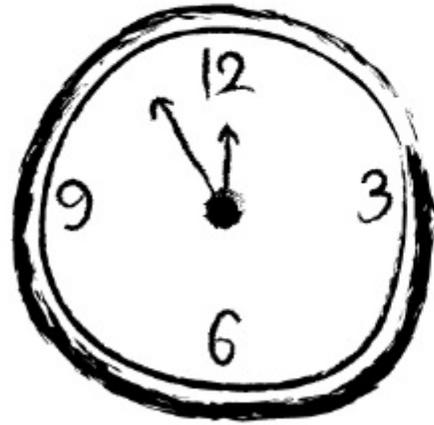
눈을 뺏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너무 목이 마르고, 자꾸만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자꾸만 참으라고, 참으라고 해요.

너무 속상해요, 나는 너무 힘든데.

엄마가 자꾸 울어서 나는 힘들다고 말할 수 없어요.



힘든 며칠을 잠만 잤어요.

이제는 몸이 잘 움직여져요.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도 나누고 신이 나요.

이모가 놀러 오면 책도 읽어주고, 사촌동생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



이모와 사촌동생들이 가고 나니 슬퍼졌어요.

다른 침대 사람들은 누가 자꾸 오는데 나는 엄마와 둘이 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몇 밤만 더 자고~”

“엄마, 몇 밤?”

“다섯 밤”

“응, 빨리 자자! 그래야 빨리 집에 가지”

자도 자도 시간이 안 갈 때 나는 심심해서 엄마에게
자꾸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엄마는 자꾸 책을 읽어주다가 잠들어요.

나는 엄마를 깨우다가 나 혼자 그림을 보기도 해요.

이제는 똑같은 그림을 너무 많이 봐서 재미가 없어요.



다섯 밤이 지나고, 의사선생님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상처를 보더니 하룻밤을 더 자야 보내준대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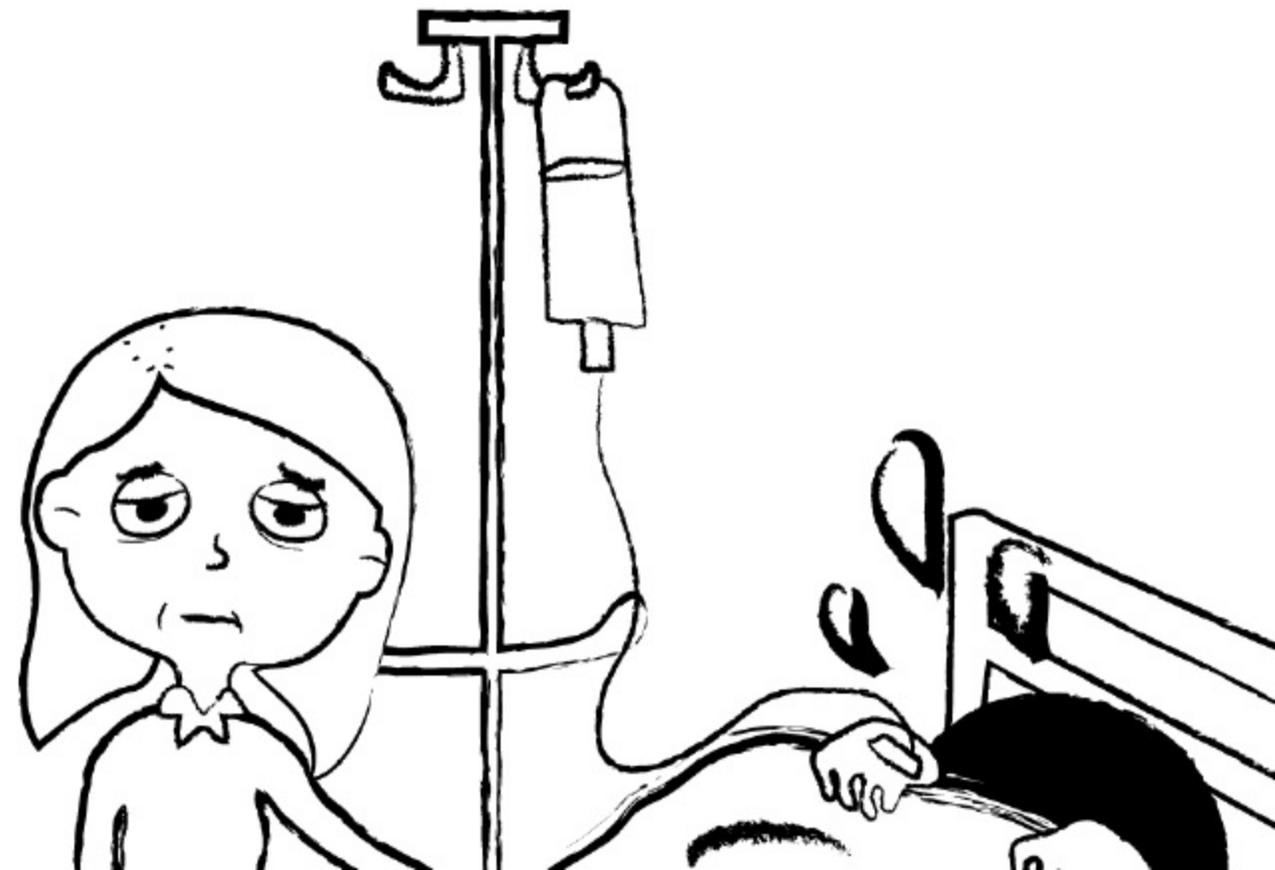
다섯 밤만 지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의사선생님과 엄마에게 짜증이 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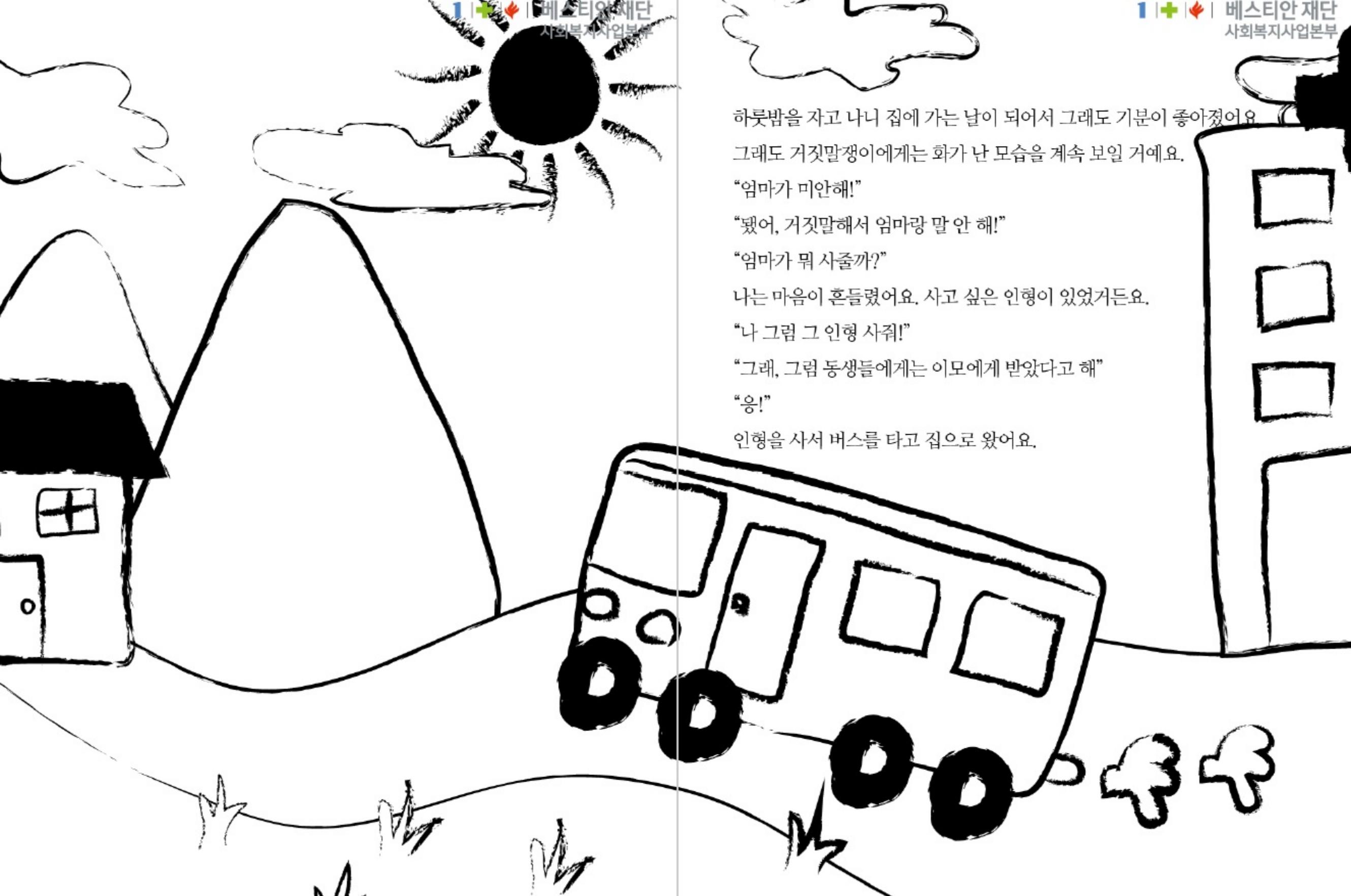
엄마에게 화가 난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의사선생님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룻밤을 자고 나니 집에 가는 날이 되어서 그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거짓말쟁이에게는 화가 난 모습을 계속 보일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됐어, 거짓말해서 엄마랑 말 안 해!”

“엄마가 뭐 사줄까?”

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고 싶은 인형이 있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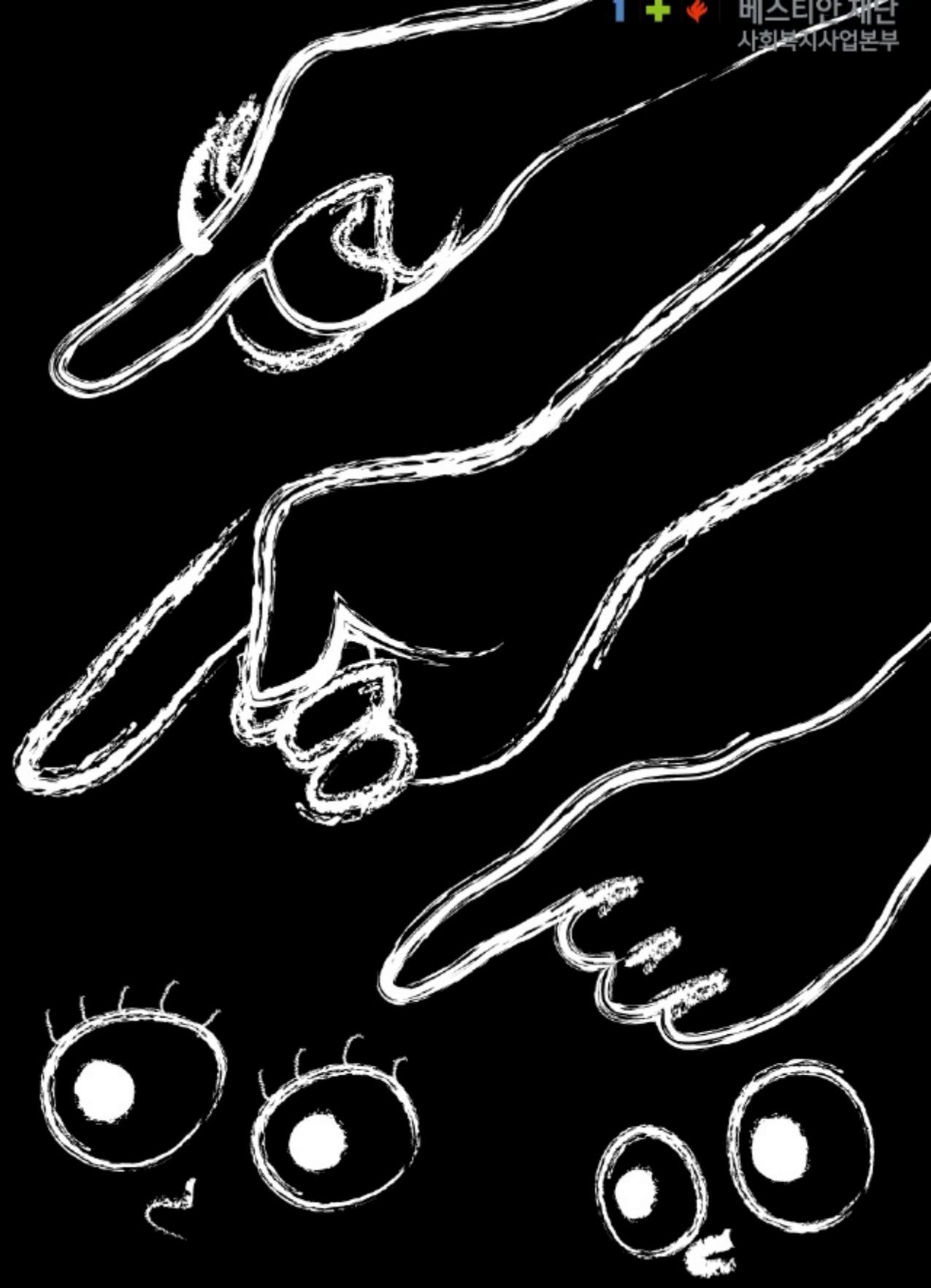
“나 그럼 그 인형 사줘!”

“그래, 그럼 동생들에게는 이모에게 받았다고 해”

“응!”

인형을 사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내 또래의 아이들이 많은 곳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나만 쳐다봐요.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으앙, 괴물이다!”
한 명이 외치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괴물이에요~ 괴물이에요~”
나는 그만 눈물이 나서 밖으로 도망쳤어요.
따라오는 엄마를 떼어놓고 엄마와 걸어온 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에 엄마가 왔어요.

“유치원에 다시 가자!”

“난 안 가! 난 할머니랑 집에 있을 거야!”

“안 돼! 유치원에 가야 해!”

“싫어! 난 할머니랑 집에 있을 거야!”

엄마는 나를 안고 다시 유치원에 갔어요.

나는 아이들이 또 놀릴까 봐 무서웠어요.

엄마는 선생님에게 나를 맡기고 유치원을 나갔어요.

나는 엄마 몰래 놀이터로 숨었어요.

놀이터에 있다가 집으로 갈 거예요.



나는 유치원에 가기 싫어요.

엄마는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나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안 가! 안 가! 으앙으앙~”

엄마는 우는 나를 안고 또 유치원으로 갔어요.

아무리 떼를 써도 엄마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속상했어요. 하지만 또 유치원에 맡겨졌어요.



유치원에서 나는 늘 혼자예요.
아이들은 미끄럼틀도 타고, 정글짐도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책을 읽고 있어요.
아이들과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책이 좋아요.
책 속에는 행복한 이야기가 있어요.
책을 읽으면 나는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어요.
선생님이 집에 가도 된다고 해서 나는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웃으면서 집으로 가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지혜야!”

처음 나를 부르는 소리에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지혜야!”

유치원에서 본 아이가 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응? 나?”

“그래”

“왜?”

“나 너희 집에 가서 놀아도 돼?”

“우리 집에?”

“응”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너는 왜 나를 보고 울거나
놀리지 않니?”

“네가 왜 무서워? 그냥 조금 아픈 거잖아!”

“..”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럼 너희 집에 가도 되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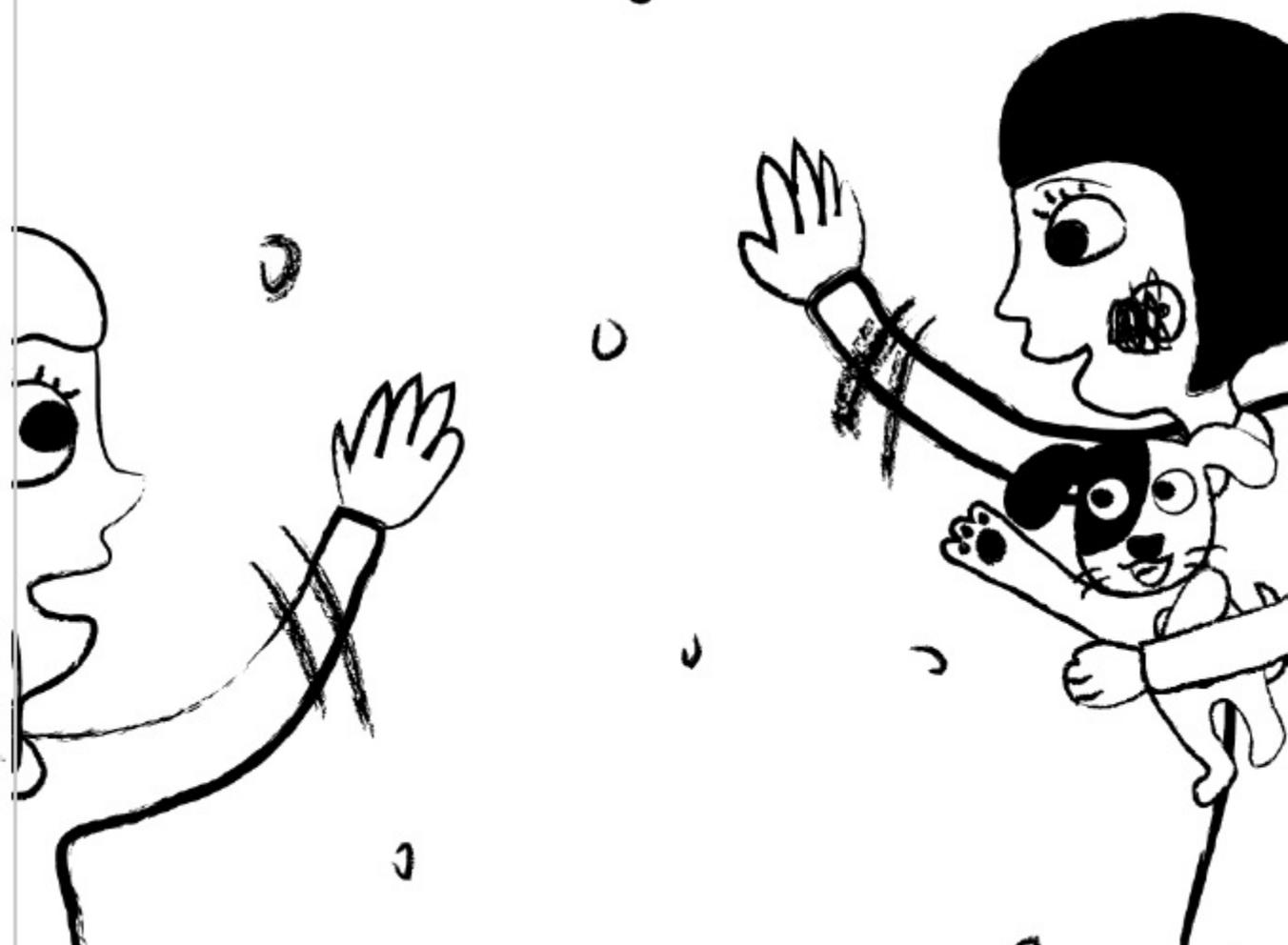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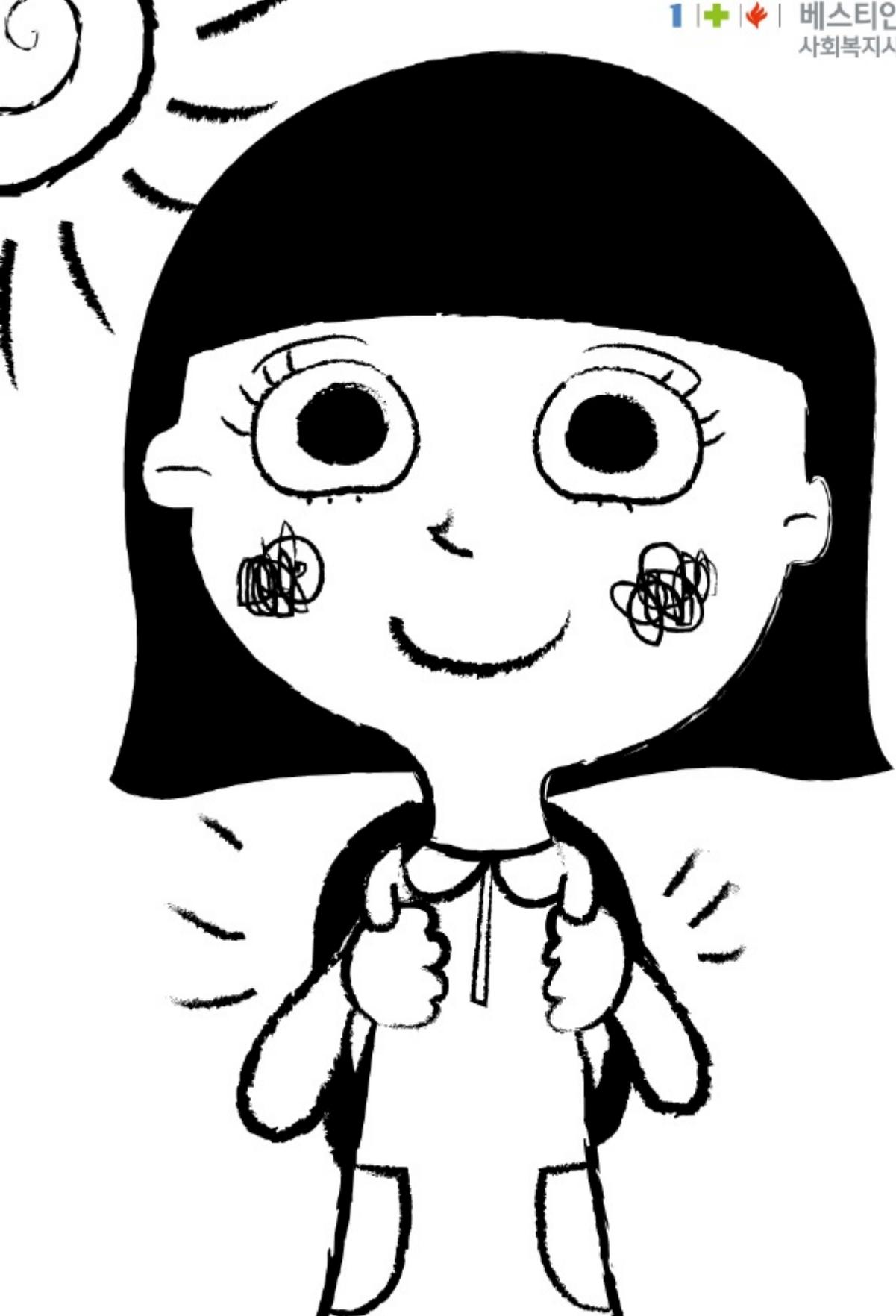


나는 친구와 우리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있는 것도 먹고, 토끼랑 강아지도 보여주었어요.



친구와 놀다 보니 어느새 저녁시간이 되었어요.
“지혜야, 나 이제 집에 갈게!”
“응, 그래!”
“안녕! 내일 유치원에서 만나!”
“응, 잘 가!”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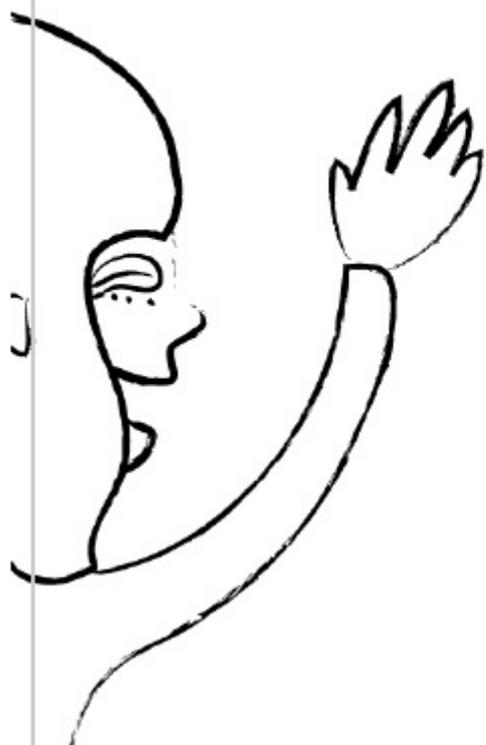




아침이 되었어요.
나는 유치원에 갈 거예요.
친구가 있거든요.
“주현아, 안녕!”
“응, 지혜야, 안녕!”

나는 주현이와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
나는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주는 시간도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유치원이 끝나면 주현이와 우리 집에 가서
할머니가 해주는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나는 내일도 유치원에 갈 거예요.





저는 평소에 나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화상환자 자조모임에서 만난 동갑친구 민희 덕분에
처음으로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편으로는 '동병상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의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고,
'화상을 입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써서 위로나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렵지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김미자" 동화 작가님이 읽어주셨던
네 얼굴을 보여줘 라는 책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따로 빌려가서 읽어보니 프랑스 작가인데 실제로 지하철을 탔다가 맞은편에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여성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자꾸 쳐다보면
속상해할까봐 오래 보진 못하였고 내릴 때 눈인사를 하는데 그 여성도

예쁘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다는 후기를 적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지, 측은하게 보는지, 호기심 있게 보는지, 두
려워하면서 보는지 느껴집니다.
우리를 측은하게 바라보지 말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봐주고,
웃어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이 조금 징그럽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같아요.

우리도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 놀고 싶고, 사진 찍기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고 이후에 겉이 달라졌다고 속도 달라지진 않아요.

요즘 드라마가 매번 예쁜 주인공만 보여주니 마음씨가 착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예쁜 외모만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게 깔려있습니다.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 예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나의 걸모습보다 나의 매력과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평생 동반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2016년 11월
글쓴이 한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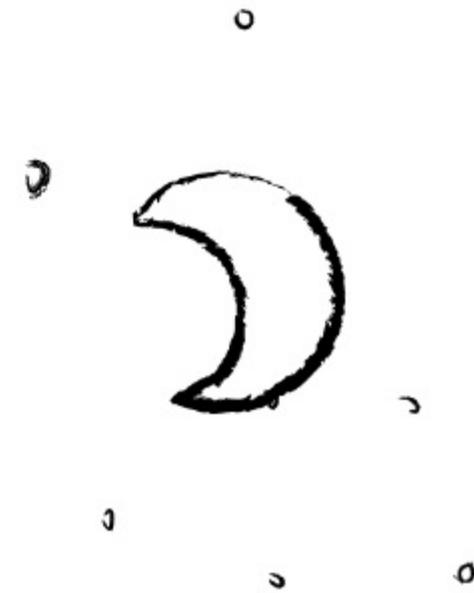
이 책의 주인공 지혜의 표정 하나하나를 지어보며 그리다보니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많았고 그만큼 아쉬운 감정도 따르네요.
후련하기도 미련남기도 하는 값진 경험 이었습니다.

같이 아닌 속을 볼 수 있는, 스스로 먼저 촌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 믿고 소중한 지혜를 냉큼 맡겨주신 이해심 많은 분, 금 같은 기회제공자,
그리고 주위에서 항상 도움 됐던 내 사람들. 누군지 다들 알죠?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보냅니다.

고마워요.

2016년 11월
그린이 조영희





나는 내일도 유치원에 갈 거예요!

© 한기명, 2016

지은이 한기명

그린이 조영희

편집 조영희, 손은령

펴낸곳 베스티안재단(<http://ibestian.org/>)

자문 김미자(글), 박현욱(그림)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은이와
베스티안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